



“함께 변화의 길로 들어가자”

기성 제111차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된 신임총회장 신상범 목사. 특별히 기자회견 시간, 그는 세습방지법이나 한국교회 연합사업, 동성애와 이단, 이슬람 대처 등의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거칠 없이 자신의 소견을 전달했다. 박용국 기자

기성 신임총회장 신상범 목사 “동성애·이슬람 등 대처, 무한 협력할 것”

기성 제111차 정기총회 개최…
현 총무 김진호 목사 선거 통해 재선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이하 기성) 제111차 정기총회가 23일 서울신대에서 시작된 가운데, 24일에는 새로운 임원과 총무를 선출했다. 특별히 신임총회장에는 신상범 목사(새빛교회)가 선출됐고, 관심을 모았던 총무 선거에서는 현 총무인 김진호 목사가 재선됐다.

신임총회장 신상범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제111차 총회를 교단 변화의 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고 밝히고, “한 때 장·감·성으로 불리던 우리였지만, 교단의 위상과 우리의 모습은 자꾸만 주락하고 있다”며 “화려했던 옛 주제에 빠져 변화를 계기로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라 지적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 않고자 교회에 집착하다가 분열하고 분리되어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면서 “변하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면 결국 도태될 것”이라 했다.

때문에 신 목사는 “성결교회가 자꾸 위축되어 결국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지게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제111년차 총회대의원들에게 “함께 변화의 길로 들어가자”며 총회장으로서 추진할 5가지 주요 사업을 소개했다.

먼저 신 목사는 “복음주의 웨슬리안, 사중복음의 성결교회 정체성을 확립하겠다”고 말하고, “근자에 많이 회석된 사중복음의 가치와 더불어 성결교회의 정신과 교단의 부흥발전도 정제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사중복음의 영성과 정신을 함양해 교단의 정체성 강화와 질적 양적 성장을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또 신 목사는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관심과 정책개발에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현재) 신약적 계기를 가져야 할 유조등부, 학생회, 그리고 청년회가 없을 교회들이 많고,

더욱 안타운 사실은 매년 많은 교역자가 배출되지만, 정작 교회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중요한 교육기관의 전문 사역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라며 “미래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성결교회의 미래도 없다는 인식 하에 다시 한 번 교육기관의 부흥과 전문사역자를 양성하도록 교단과

신학교, 교회가 함께 머리를 싸매고 발전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신 목사는 “작은교회 그리고 농어촌교회에 관심을 갖고 격려하겠다”고 했다. 그는 농어촌 목회를 위해서 농목과 목회를 위한 포럼을 개최해 농어촌 목회에 힘을 더하겠다고 했다. 또 작은 교회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국선위의 부흥기 워드, 교회진흥원, 개척교회 훈련원의 사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교단 내 작은 교회와 농어촌교회의 괴谬한 현실을 봤고, 또 하나님께 주신 사명 때문에 생활이 어렵지만 목록에 사역하는 교역자들을 봤다”고 했다.

또 “교회의 형편이 어려워서, 혹은 늦은 나이에 사역을 시작해 교단 연금에 가입기회를 놓쳐 노후를 걱정하며 사역하는 목회자들과 교회관계자들을 보고 남의 일처럼 지나칠 수가 없었다”면서 본인을 위시한 모든 총회 부서의 회의 식비를 1만 원 이하로 재한하고,

총회 각국실과 부교부서와 항준위원회의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 그것을 공제회로 이관해 기회를 상실한 이들에게 가입 기회비용으로 내놓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네 번째로 신 목사는 “교단 화합과 현법 질서 수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교단 법질서 확립을 위해 조정 제도를 강화하고, 법집행의 엄중성만큼이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

▶법집행 실무자들이 총회와 지방회 재판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을 추구하겠다

▶교단 갈등의 요소였던 항준위원 선정에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탐탁한 인사를 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덧붙여 “혹시 기업을 하는 장로들이 있다면 기업의 면세 기부금으로 이 일에 동참해 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너 번째로 신 목사는 교단 중장기 부흥발전 프로젝트를 세우겠다고 했다. 그는 “1년 임기의 총회장 중심의 사업은 연속성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총회장은 교단을 대표해 대외적인 업무와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정책 방향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교단 운영과 정책 입안과 추진은 6년을 재임하는 총무가

중장기적 정책과 플랜을 세우고 일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때문에 신 목사는 “매 3년마다 치러지는 총무 선거가 교단적으로 엄청난 힘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 간 선제를 통해 좀 더 짧고 유능한 분을 모시고 총무 퇴임 이후에 남은 정년을 교단 기관에서 근무하도록 보장해 역동성 있고 안정성 있는 총무 사역과 교단이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신 목사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교회 구성원의 고령화는 어쩔 수 없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우리 교단 전체 대의원의 75%가 60세 이상”이라 전하고, “오랫동안 교단을 위해 헌신한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연륜과 지식으로 총회의 각 부분에서 활동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이대로 가면 교단의 각 부분에서 연속성이나 역동성이 결여될 수 밖에 없다”며

“교단 내 젊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배치해 교단의 각 부분에서 번역이는 예지와 역동성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네 번째로 신 목사는 “교단 화합과 현법 질서 수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교단 법질서 확립을 위해 조정 제도를 강화하고, 법집행의 엄중성만큼이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

▶법집행 실무자들이 총회 대의원들의 인준을 받았다. 2명이 후보로 나섰던 장로부총회장 선거에서는 홍재오 장로(서울대신교회)가 당선됐으며,

조영래 목사(한내교회)와 김영록 장로(청량리교회)가 각각 부서기와 부회계에 당선됐다. 특별히 총무 선거에서는 현 총무인 김진호 목사(한우리교회)를 비롯해 성찬용 목사(성과교회), 문창국 목사(안산단원교회)가 출사표를 던졌으며,

3차례의 선거 접전 끝에 김진호 목사가 재선됐다.

고 했다.

신 목사는 “(기성 교단이) 중간에서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느 한 쪽에서 강하게 가겠다고 나서면 힘을 모으는 쪽에 더 힘을 모도록 하겠다”면서 다시 한 번 “섣불리 탈퇴 비탈퇴를 논하지 않고, 하나 되는 곳에 힘을 모아주겠다”고 이야기 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세습방지법’과 관련, 신 목사는 “구약에서는 제사장도 세습을 했고,

신약에서 목회자들은 제사장 중 하나”라며 “이것을 세상 장대를 갖고 (제단에 안 된다)”며 “세습이란 말은 세상에서 나온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저도 감히 밝혔는데, 아들도 목사이지만 절대 교회 대를 잊게 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지만, “똑같은 청빙조건에서 경쟁력과 능력이 있다면 (세습이라 해도) 청빙할 수 있다”며 “세습방지법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지방회에서 할일이니,

만일 안이 올라오면 어느 한 쪽 치우침 없이 처리할 것”이라 이야기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의 동성애와 이단, 이슬람 문제 대처에 대해서 신 목사는 “당당하게 대처해야 할텐데, 현재 한기총이나 한교연 등이 하나 되기 어려워 참 안타깝다”면서

“이런 일로 연합하는 것은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다.

덧붙여 “재정적인 것도 듣고, 이 3가지 문제는 교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일이기에 무한 협력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일원선거에서는 단독 출마한 총회장 신상범 목사 외에도 목사부총회장과 서기, 회계 등에 각각 단독 입후보했던 윤성원 목사(삼성제일교회), 남장우 목사(여의교회), 김정식 장로(신마산교회)가 총회 대의원들의 인준을 받았다. 2명이 후보로 나섰던 장

로부총회장 선거에서는 홍재오 장로(서울대신교회)가 당선됐으며, 조영래 목사(한내교회)와 김영록 장로(청량리교회)가 각각 부서기와 부회계에 당선됐다. 특별히 총무 선거에서는 현 총무인 김진호 목사(한우리교회)를 비롯해 성찬용 목사(성과교회), 문창국 목사(안산단원교회)가 출사표를 던졌으며,

3차례의 선거 접전 끝에 김진호 목사가 재선됐다.

박용국 기자

기하성 여의도순복음, 형제 교단과 통합 위한 ‘기하성 총연합회’ 구성

제66차 정기총회 개최 현안 논의…
총회장에는 현 이영훈 총회장 연임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이하 기하성) 여의도순복음 즉 총회가 22~23일 제66차 정기총회를 인천순복음교회에서 개최한 가운데, 형제 교단인 기하성 서대문 즉 등과의 통합을 위해 중간 역할을 해줄 ‘기하성 총연합회’ 등을 구성해 함께 활동하며 교류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기하성 서대문 즉 총회장 정동균 목사는 제66차 정기총회를 열고 여의도순복음 즉 총회와의 통합을 결정했던 바 있다. 또 기하성 여의도순복음 즉 총회장 이영훈 목사에 따르면, 부산에서 총회를 개최한 기하성 광화문 총회장 이영우 목사(순복음강남교회) ▶장로부총회장 이영수 장로(여의도순복음교회) ▶서기 강인선 목사(순복음평화중앙교회)▶재무 박현준 목사(순복음평택중앙교회)가 선임됐다.

또 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임명직 부총회장에 강영선 목사(일산순복음영산교회) 신덕수 목사(한일순복음교회) 최명우 목사(순복음강남교회) 김봉준 목사(아홉길 사랑교회) 등을 임명하고 총회는 이를 인준했다. 이들은 선교와 교육 등 각 영역의 사역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교역자연금공제회 전임 이사장 등의 험정으로 말미암아 거제 손실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 현재 총 사고금액 83억 원 가운데 37억원이 회수됐고, 이자 20억 원을 감안하면 모두 66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이 총회장은 연금 재단 손실액 회수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관련기사2면

조은식 기자

대만, 결국 ‘동성결혼 합법화’ 이뤄져

아시아에서 최초로 대만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선언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대만 현법재판소는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조항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과 AFP통신 등 다수의 언론사들이 보도했다.

대만 현법재판소는 판결을 통해 “결혼 계약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는 현행 민법 조항이 현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자유롭게 결혼할 권리와 위배된다며 현법 제22조 혼인자유규정, 현법 제7조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더불어 현재는 동성결혼 허용이 사회 안정성 및 인간 존엄성에 기여할 것이라 했다. 모두 14명의 재판관 가운데 2명 만이 이를 반대했다.

이번 결정이 나오게 된 것은 대만의 동성애 인권운동가인 치자웨이(祁家威) 등이 ‘이성 만이 법률상 혼인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민법 제972조에 대한 위헌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이에 의회는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조항을 2년 내 개정해야 한다. 기한 내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의 이번 결정은 구속력이 있어 결혼을 원하는 동성애자들은 호적사무소에서 결혼 등기를 자동적으로 수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대만은 매년 동성애자 및 트랜스젠더 등 소위 자신들을 성소수자(LGBT)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퍼레이드가 열릴 정도로 동성애자들을 응호하는 차이잉원 총통이 지난 해 접수된 후 분위기가 상당히 바뀐 것으로 이번 현재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장소피아 기자

갈등·분쟁 극복하는 '평화 목회' 했던 애산 김진호 목사를 기리며

감신대, 개교130주년·웨슬리회심279주년
기념 제30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감리교신학대학
교(이하 감신대)가
개교 130주년과 웨
슬리회심 279주년
을 기념하며 학술
대회를 개최한 가
운데 '애산 김진호'
(1873~1960) 목사
의 목회와 민족운
동에 대해 조명했
다. 23일 오후 감
신대 백주년 기념
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덕주 교수(감신
대)와 한규무 교수(광주대)는 각각 애산
의 교육·목회와 민족운동에 대해 이야기
했다.

애산 김진호 목사는 대한제국 말기의
한학자로서 일제 강점기 초기에 기독교에
입문한 인물이다. 상동교회 전eric 목사
와 신민회 활동을 하고, 정동교회 전도사
로 있으며 배재 학생들과 3.1운동 후 내
리교회를 담당했으며, 배재기독학생들과
이태원, 흥제원 교회를 부흥시켰다. 퇴직
후 궁정교회 및 삼청교회를 담당하다 파
송 받아 북한 청진에서 목회하며 6개 교
회를 개척했고, 각종 종교 기록을 남겨

초기 한국기독교의 역사를 증거했다.
이덕주 교수는 먼저 애산의 목회에 대해
“크게 학원 목회와 교회 목회 두 영역
에서 아뢰었다”고 말하고, 특히 “배재에
서 정년 은퇴한 후 교회 목회에 본격적으
로 임했는데, 일제말기 종교 탄압이라는
외부 요인과 교회 내부의 갈등과 분쟁으
로 인한 어려운 환경에서 화해와 일치를
추구했다”며 애산의 목회를 ‘갈등과 분
쟁을 극복하는 평화 목회’라고 평가했다.
덧붙여 애산의 목회는 기독교 신앙과 민
족운동의 조화를 추구했다고 했다.

특히 이 교수는 “애산의 목회에서 교육
과 목회, 이론과 실천, 종교와 문화, 학문
과 신앙, 진보와 보수, 전통과 개혁이라는
두 축은 갈등과 충돌의 상극 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조화와 공존의 상생 요
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하고, 한 예로 “목
회자로서 기독교를 통한 개화와 근대화
를 받아들였지만, 한국 전통 철학과 문화
유산을 폐기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았다”
며 “그의 학문적 종교적 입장은 한 마디
로 본질과 진리에서 지킬 것은 지키되, 지
엽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은 과감히 척결하
는 ‘개혁적 보수주의’라 할 수 있다”고 평
했다. 한규무 교수는 올해가 애산이 전



초기 서울 YMCA 지도자들의 모습. 앞줄 둘째부터 이덕주, 윤치호, 브록크만, 이상재, 에비슨, 이
인영, 홍병덕 등이 있고, 가운데 줄에 버른하트, 신흥우, 뒷줄에 구자옥, 육정수 등이 보인다. 뒷줄
이상재선생기념사업회

더기에게 세례를 받은 지 110주년이 되는
해라 밝히고, “애산의 수세(受洗)와 신민
회 입회는 신앙생활과 민족운동에 대한
그의 각오를 새롭게 다져주는 계기가 되
었음이 분명하며, 이는 하나님과 민족을
향한 또다른 의미의 회심이기도 하다”고
평했다. 다만 한 교수는 애산과 신민회·상
동청년학원과의 관계와 애산의 3.1운동의
의미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이것들을 관련 앞으로 애산이 어
떤 방식으로 민족운동을 계속했으며 그
것이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그것이 아마도 자신의 과제가 될 것 같다
며 강연을 마무리 했다. 한편 학술대회에
서는 이덕주·한규무 교수의 발표 외에도
애산의 손자인 김주황 목사(애산교회)가
애산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오세
종 목사(예수원교회)가 “애산 김진호 목
사의 한학에 관한 개괄적 이해”를 주제로
발표하기도 했다. 또 감신대는 이날 학술
대회 외에도 감신대 백주년 기념관 로비
에서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애산의 사
진과 저서, 사료들을 모아 전시회를 개최
하기도 했다.

조은식 기자

기하성 서대문 측, 여의도순 복음 측과 통합 결의 정동균 신임총회장에게 전권 위임

기독교대한하나
님의성회(이하 기하성)

서대문 측 종회
가 제66차 정기총
회를 개최하고 기
하성 여의도순복음
측 종회와의 통합
을 결의했다. 신임
총회장에는 정동균
목사가 선출됐으
며, 정 목사와 함
께 신임 이사장으
로 선출된 박광수
목사는 양 교단 통합
을 결의한 후 신임
총회장에게 전권 위임
권한을 위임받았다.



기하성 서대문 측 신
임총회장 정동균 목
사 기하성 총회 제공

정동균 목사(서울남부교회)를 비롯해 ▶
제1부총회장 박지호 목사(인정순복음교
회) ▶제2부총회장 송수용 장로(순복음
경동교회) ▶서기 성한용 목사(더사랑청
교회) ▶재무 양병열 목사(순복음성남
교회) ▶회계 박용권 목사 ▶총무 송시옹
목사(성도순복음교회) 등이 선출됐다.

한편 서대문 측은 종회를 통해 교단
개혁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특별히 권
력의 장기 독점 및 금권선거, 선거 과열
등을 차단하기 위해 종회 임원 선거제도
를 제비뽑기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종회
장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다득표자
3인을 뽑은 후, 제비뽑기로 1인이 결정된
다. 이 안은 2년 후인 오는 제68차 종회
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목회자 윤리 문제와 관련, 종회 임
원 입후보시 200만원 이상의 금고형이나
6개월 이상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사람은 입후보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교단은 매월 마지막 화요일 목
회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교단미래발전
위원회 등을 구성해 도사·농어촌 교회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교권 다툼 없는
교단정치 연구, 신학교 정상화 등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박용국 기자

기하성 총회 신수동 측, 신임총회장에 김서호 목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이하 기하성)
신수동 측의 제66회 정기총회가 충북 제
천 순복음신학교에서 22~23일 열린 가운데
데, 신임총회장으로 김서호 목사가 선출

됐다.

더불어 종회 신임 임원 명단으로는
▶제1부총회장 유영희 목사
▶제2부총회장 김철수 목사

▶장로부총회장 김이진 장로
▶서기 우시홍 목사
▶회계 허중범 목사
▶재무 이기봉 목사 등이 선출됐다.

신임총회장 김서호 목사는 4개로 갈라
진 기하성 교단의 정통성과 역사성이 자
신들에게 있다고 강조하고, 교단 위상 강
화와 교회연합사업 등에 힘을 다짐
했다.

그는 화합과 협력, 원칙과 절차에 맞는
공정한 교단 운영을 이야기했다.

더불어 ‘학교법인 순총학원’ 문제에 대
해서도 외압에 굴하지 않겠다며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다. 기하성 신수동 측은 현
재 순총학교법인빌딩을 종회 본부로 사
용 중인데,

여의도순복음선교법인이 이 빌딩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던 바 있다.

한편 순복음 신수동 측은 지난해 11월
횡령과 문서위조죄 등의 혐의로 법정 구
속된 박성배 목사가 소속된 교단이다. 현
재 교단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과 NCCK(총무 김영주 목사) 등에
가입해 활동 중이다.

박용국 기자

월드비전 월드비전 마이키즈 캠페인 참여방법!

1.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2. 모바일웹 mykids.wv.or.kr로 접속해보세요.

3. 월드비전 Family Card와 함께 아동 정보가 담긴 카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4. 아동과 편지를 교환하여 선물을 보내거나 아동이 사는 지역
방문하여 아동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한 달에 아동연락장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6. 월드비전 후원금을 통해 아동의 영양, 보건, 학습, 교육 및 마음에 힘을 줍니다.

7. 아동후원금은 한 아동의 배고픔을 낸어 짐을 키우고
한 아동의 희망이 됩니다.

페이지 www.worldvision.or.kr 후원 문의 및 신청 02-2078-7000

[이영진 칼럼] 기독교 좌파는 어떻게 한국교회를 집어삼킬 수 있었나

세습교회 때문
예? 목사들의 세스
스캔들? 돈 스캔
들? 이것들이 문제
는 문제였지만 문
제의 본질은 아니
다.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기 위해
잠시 AD 1세기 유
대교의 전환기 과
정을 들여다볼까 한다. 한국교회가 기독
교 좌파에게 잡식당하는 과정과 대단히
유사한 면이 포착되기 때문이다.

이미 BC 1-2세기 경의 유대교는 과거
의 상류계급은 별개로 세속화된 상류계
급이 끝부상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른 아
닌, '율법학자들이었다'.

당시의 귀족은 모두 다 세습귀족을 말
한다. 이를 세습귀족은 둘로 나뉘었다.
'세속적인 세습귀족'과 우리가 이제 관심
가지고 지켜볼 '종교적 세습귀족'이다. 신
증 상류계급은 물론, 유통학자들이 바로 이들
과 종교 권력의 다툼을 벌여 승리를 거두
었기 때문이다.

이들 간에 벌어진 권력 침탈전은 시간
이 흐를수록 신증 상류계급에게로 승기
가 넘어갔다. 대체 어떻게 했기에 그리 될
수 있었을까? 이를 신증 상류계급은 대체
어떤 자들이었기에 그토록 오랜 역사를
장악하던 세습귀족과 감히 투쟁을 전개



호서대 이영진 교수

할 수 있었고, 어떻게 했기에 그들을 잡
어삼킬 수 있었을까? 이들의 마강한 힘은
대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과거의 율법 해석의 권위는 대부분 고
급사제 계급에게 있었다. 세습사제 계층
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위는 단지
세습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라, 율법에 대
한 해박한 지식과 해석능력에 기인하는데
이러한 고급사제들이 AD 1세기 초까지만
해도 건재하였다고 한다.

이를테면, 탈무드에 나오는 성전 경비대
장 랍비 하나니아라든지 그 외 랍비 문
현에 나오는 어떤 대제사장의 손자인 이
스마엘 같은 사람들은 당시의 유력한 세습
귀족 가문 출신의 율법 권위자다. 우리가
잘 아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도 바로 이
런 귀족 출신의 문서 권위자이자 문필가
였다.

그러나 유통학자들은 가운데는 귀족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류계급 사제로
부터 다양한 계층이 있었다. 가령 헬라식
전통의 회당에 봉직하는 세습 가문의 자
식들이라든지, 성전의 수문장 아들, 성전
에서 노래하는 가수의 아들 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다양한 직업군 계층이 유통학자라는
타이틀로 결합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성전이나 회당에서 직
간접의 예전에 종사하는 사람들 외에도
포도주장수, 기름장수, 목수, 천막제조자,
롯대장장이...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되

어 있었다.

그런데 이들 후자의 경우는 세습귀족
들에 비하면 사회적으로 천한 출신에 속
했으므로 상대적으로 가난했던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종교 권력의 승기가
넘어왔던 이유는 오로지 하나, 오직 지식
만이 이들 유통학자들의 힘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이 이와 같은 승기를 거
며취게 되는 데는 사회적으로 이런 역학
구조가 있었다.

당시 제국의 힘 아래서 살아가야 했던
일반 시민들은 형사와 민사에 관한 법률
에 있어서 어지간한 민사재판의 경우는
회당과 같은 지역 공동체에 의존했다. 회
당은 중대한 민사법정뿐 아니라 경미한
형사 사건에 대한 치리까지도 관할했던 흔
적이 여러 사료에서 발견된다.

바로 이때, 어떤 공동체가 그 민사재
판의 진행을 위해 재판관을 임명할 경우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 하는 점이 대두되
기 마련이다(정식 재판관은 아니기 때문
에). 즉, 이때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결
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법률에 대한
지식과 그에 관한 해석의 능력이었는데,
그에 관한 뛰어난 실력이 바로 이들 신증
유통학자들에게 있었던 것이다.

상대적으로 사제 가문의 세습귀족들에
게서는 이 지식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
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는 옛 세습귀족들
이 치지했던 많은 주요 자리들이 AD 1기
에 이르러서는 거의 대부분 이들 신증 유통

학자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의미한
다. 신증 상류계급은 이렇게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1세기 팔레스타인의 스
케치가 아니라, 단연코 우리나라 전통교
회가 기독교 좌파에게 넘어간 계묘이기도
하며, 또한 이것은 굳이 종교와 세속의
구분 없이 이번 새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
에서 목격되었던 일련의 유통사들 즉, 법
조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미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바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종교에 관한 한, 저와
같은 AD 1세기의 정치적 해계모니 변화
가 유통학자들이 그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궁극적 이유인 것은
아니다. 그럼 대체 뭐나?

당시 유통학자들이 그와 같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궁극적 이유는, 그들이
종교법 자체에 관해 능통해서 그런 요
직을 겸임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이들이 '비의적' 전통에 능통하여, 그 비의적
지식들을 탐색할 줄 아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이다. 비의적 지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것
이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
게 하리라" 바로, 이 알지 못하는 신(AN
NOZTΩ ΘΕΩ)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오로지 이 능력만이 여러분을 이
시대 절체절명의 모든 적그리스도 생태
환경에 빠진 우리나라 전통교회를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진정한 유통학자 바울

이전의 바울 즉,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색출해 잡아가는, 살기와 등등한 바울에
지나지 않는 교회파괴 행태를 구사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와 같은 우려를 같이 하는 한
국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권고한다. 이들로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시 탈환해올 것을. 그 일을 어
떻게 해 낼 수 있을까?

우선 유통에 능통한 자들이 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전통교회의 잠식은 개
인의 세스 스캔들이나 돈 스캔들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지식의 질적 저하에서 가
속화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시
권고하건대, 유통에 능통한 자들이 될 것
을 권고한다. 그리고 특별히 비의적(秘義的)
전승에 능한 자 되기를 당부드린다.

그것이 이 시대의 신증 종교귀족 기독교
좌파들에게서 교회를 재 탈환해낼 강력
한 무기가 되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비의
적 지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것
이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
게 하리라" 바로, 이 알지 못하는 신(AN
NOZTΩ ΘΕΩ)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오로지 이 능력만이 여러분을 이
시대 절체절명의 모든 적그리스도 생태
환경에 빠진 우리나라 전통교회를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진정한 유통학자 바울

로 만들어 줄 것이라 확신하는 바이다.
덧붙여서.. '비의적(秘義的) 지식' 이라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대의 역사적 랍비들에게 '비
의적 전승'이라고 하면 카발라????????????
아류를 일컫는 말이지만, 실질적 랍비들의
파워는 이 신비주의 자체에서 나온게
아니라 이 카발라 파워를 지지대로 삼아
토라를 해석해 내는 능력에 있었다.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권위를 획득
한 것이다.

오늘날 전통교회는 이러한 지적 수단과
능력이 부족한 까닭에 신천지 같은 이단
과 기독교 좌파에게 영혼을 빼앗기는 원
인이 되었다.

간증집이나 영성일기 같은 것에만 길
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를 테면 움베르트
에코나 페트리크 쥐스킨트로 대변되는 비
의적인 세계속에서 그 알지 못하는 신(AN
NOZTΩ ΘΕΩ)을 발견해 낼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 이영진 교수는 호서대학교 평생교육
원 신학 전공 주임교수이다. 그는 다양한
인문학 지평 간의 융합 속에서 각 분야
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도, 매우 보수적
인 성서 테제들을 유지해 혼합주의에 베
�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신학자로,
일반적인 융·복합이나 통섭과는 차별화된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자본적 교회'(대
장간) '철학과 신학의 봉타주(봉성사) 등
의 저서를 갖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전교조의 재합법화는 신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 전교조(전국
교직원노동조합)의
재합법화 논란
이 되고 있다. 전교
조는 DJ 정부시절
인 1999년 합법화
이후, 지난 2010년
고용노동부가 '해
직자를 조합원으
로 인정하는 규약
의 시정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하였고,
오히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시정령 취소 소송'을 제기함으로 전
교조의 법외노조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한국교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2년 '고용노
동부의 시정령명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전교조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
리고 그 해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통보하였으나, 전교조는 다
시 '법외 노조 통보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에서는 2014년 1월에 전교조에 폐
소를(1심), 2016년 1월 2심에서도 폐소결
정을 하였다. 그 사이 2015년 5월에는 현
법제판소마저도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해고자는 노조
가입할 수 없다는 요지)를 '합헌'으로 결
정하였다.

현재 이 문제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

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촛불
개혁 10대 과제'를 내세워 교원노조 재합
법화를 선언하고 나선 것은 과정 친절이다.

지금까지의 전교조의 활동을 살펴보면,
'지나친 정치 투쟁'으로 흘렀음을 볼 수
있다. 전교조는 지난 해 전국 대의원대회
를 통하여 결의하기를, 교원노조법 개정,
교원평가 및 성과급제 폐지, 대학평준화
등 교육체계 개편의 '3대 사업'을 결의하
였다.

거기에다 세월호 전상규명, 한국사 교
과서 국정화 저지, 사드배치 저지, 공공부
문 민영화 저지에 적극적으로 투쟁한다

는 목표를 공개하므로, 이것이 교육을 위
한 교원 노조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한껏 정치력을 발휘하려는 세력인지 모를
정도이며, 자기 정체성이 모호한 집단으
로 국민들에게 비춰졌다.

오죽하면, 전교조 내부에서조차, '정치
투쟁'과 '민주성과 대중성을 잊어버
렸다'는 자성과 함께, 새로운 노조를 만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게 되었을
까?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지도 않
았는데, 정치권과 힘을 합하여 재합법화
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깡그리 무시하는 잘못된 처
사이다.

전교조가 합법화된 단체로, 국민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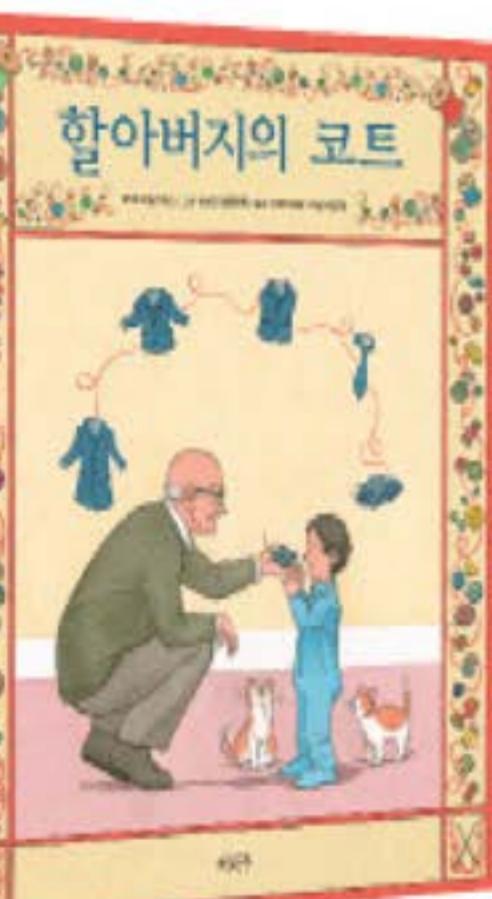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먼저 준법정신을 실천하고, 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로써의 윤리와 정체성을 되찾기
를 바란다.

전교조가 아무리 편향된 정치권의 힘
을 믿고, 재합법화를 추진한다고 하여도,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학부모들이 존재하
는 한, 교육 현장에서 이념대립을 부추기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
만 내려고 할 때에는 국민의 저항은 커져
갈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혼란하고
무질서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자기 영역
에서의 성실한 역할은 도외시하고, 남의
영역을 침범하여, 지나친 자기주장들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전교조의 재합법화는 힘으로 몰아붙이
려는 시도보다, 적절하고 적격한 자격과
교육자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먼저
보여야 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전교조
의 재합법화는 신중히 기다리는 것이 맞
다고 본다. 지난 2014년 전교조의 법외
노조와 관련하여,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전교조가 '좋다'
는 것에는 19%가 답을 했고, '좋지 않다'
는 응답에는 48%가 동의한 것을 참조하
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전전정부까지의 '적폐'를
조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런 정부의
정책에 맞게, 전교조는 적폐 대상이라는
오히려 받지 않기를 바란다.

코트는 없어졌지만, 검소한 삶의 자세는 전통으로 남았어!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선정 '2014 최고의 어린이책'

이국땅에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장만한 코트 한 벌.
할아버지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어요.
남고 해져서 더 이상 못 입을 지경이 된 코트를 버렸나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글쎄, 낡은 코트로 재킷을 만들고,
또 재킷으로 조끼를 만들고, 그 조끼로 네티아리를 만들었대요.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이렇게 외쳤어요.
"아무렴, 여전히 쓸 만해."

하찮고, 오래되고, 물품없던 것도 소중히 다루고, 오래 간직하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변신했어요.
친명한 영품은 내가 만들고 가꾸는 거예요. -한국 디자이너·보자기 마디스트 이호재



전국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도서 분의 02-726-7855

